

드림 레터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기상청 어린이 기상교실

예보가 나오는 과정과 기상에 대한 상식, 날씨와 관측에 대해 알아보세요.
기상청 어린이기상교실(www.kma.go.kr/child/main.jsp)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교육

항공우주 관련 다양한 학습 교재를 만나보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www.kari.re.kr) > 과학교육 > 학습자료실 > 학습교재



하늘을 달리니 아이도 달린다



오랫동안 우리 상상 속에서 우주는 동경의 대상인 동시에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발전한 과학기술 덕분에 마침내 인류는 우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년 전에는 최초의 한국인 우주비행사가 탄생했고, 7년 전에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자녀에게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 있는 우주 세계에 대한 꿈을 키워 주세요.

해외 직업

무인항공기시스템개발자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무인항공기시스템개발자는 새로운 융합기술로 미국의 국립항공우주국(NASA)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 직업

항공우주공학자

미래의 직업 세계는 지구의 울타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우주선을 연구하고 로켓과 인공위성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겠지요.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호기심과 창의성은 미래의 우주 관련 직업에 큰 힘이 됩니다. 자녀가 기계를 좋아하고, 밤하늘의 신비로움에 매혹되어 있다면 항공우주공학자의 꿈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 주세요.

진로 멘토링

* 우리 자녀를 가장 힘나게 하는 말,
응원의 메시지를 빈칸에 채워 넣어봅시다.

WHY NOT?

끝없는 우주처럼 무궁무진한 자녀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학부모님은 우주정거장이 건설되고 위성을 띄우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경험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우주와 하늘의 매력에 푹 빠진 자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꼭 항공우주과학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진로 가능성은 우주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한국의 첫 번째 우주발사체인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진로 멘토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더 큰 상상의 나라를 펼쳐 봅시다.



네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

모든 꿈이
신경해

너의 꿈을 응원해

허무맹랑한 꿈이란 없단다

공감 대화법

자녀의 꿈이 다소 황당하고 뜬금없어서 당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 문명은 호기심의 산물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구와 호기심이 자연의 한계를 점차 극복하면서 지금과 같은 문명을
만들어냈지요. 이제는 펭귄만 살던 남극에 기지를 세우고 운석을
찾는가 하면 무중력의 우주공간을 탐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호기심과 탐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절실한 미덕입니다. 지금의
어린이들이 언젠가 어른이 되고 공동체의 주인이 되면 자신이 배우고
얻은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며 우리의 문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학부모님이 어린 시절 듣고 싶었던 말은 “참 흥미로운 생각이구나, 좀 더
이야기해보렴” 등 나의 꿈을 응원하고 북돋워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는 것, 바로 역사사지의 공감 대화법입니다.

